

하락하는 출생률, 어떤 '불안'이 존재할까?

통계청이 8월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명(-8.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¹⁾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조출생률²⁾은 6.4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다. 대전시의 출생률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또 저출생이라는 결과 안에 어떠한 불안이 기본값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주목해보자.

대전 합계출산율 2000년 1.50명 → 2018년 0.95명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대전은 2000년 1.50명에서 2018년 0.95명으로 감소했으며 서울(0.76명), 부산(0.9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18년 대전 5개 자치구의 합계출산율은 유성구가 1.083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덕구 0.906명, 동구와 서구 0.903명 순이었으며, 중구(0.882명)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018년 6.3명으로 2000년(14.2명)에 비해 7.9명 감소했다. 대전의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첫째아는 2000년 9천 1백 명에서 2018년 5천 2백 명으로 42.9%가 감소했다. 2018년(3천 3백 명) 둘째아는 2000년(8천 2백 명)과 비교해 59.8% 줄었으며, 셋째아 이상은 2018년 8백 명으로 2000년(2천 2백 명)보다 63.6%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첫째아를 출산한 후 둘째아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단위 : 해당 시도 가임 여성 1명당 명, 해당 시도 1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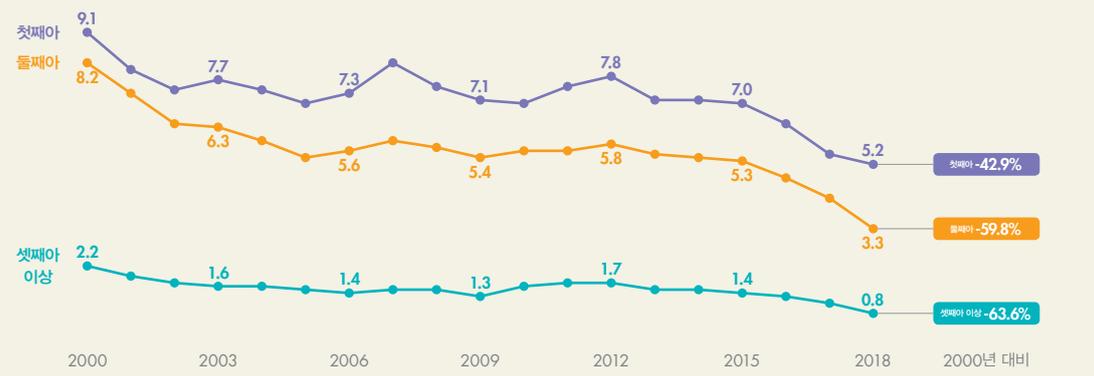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 인구 1천명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

대전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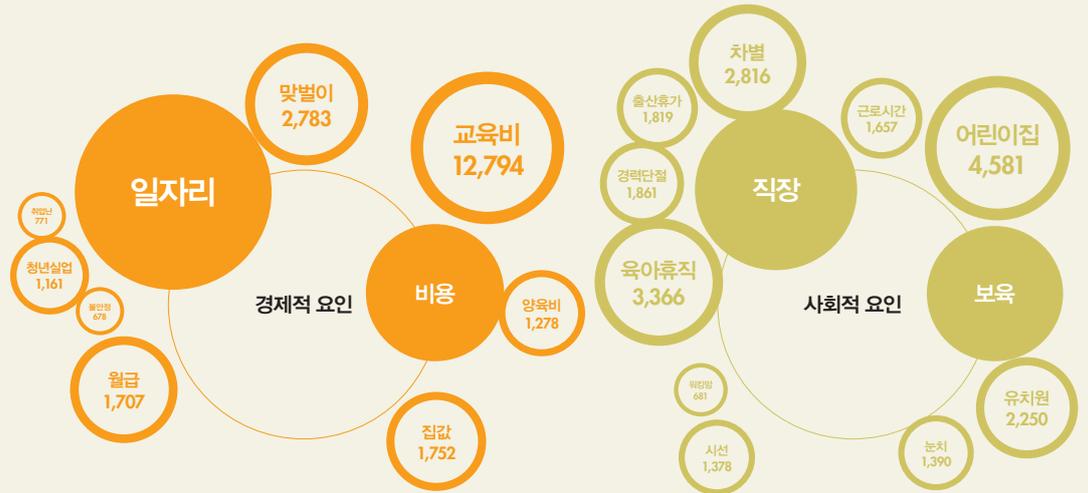
*출산순위미상 제외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생 원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일자리'와 '교육비' 언급량 가장 높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핵심어(키워드)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보여줬다.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이유 중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문제)'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이 출산의 걸림돌로 꼽혔다.

저출생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관어 분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19.7.3),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

대전의 '저출생 원인'과 관련된 지표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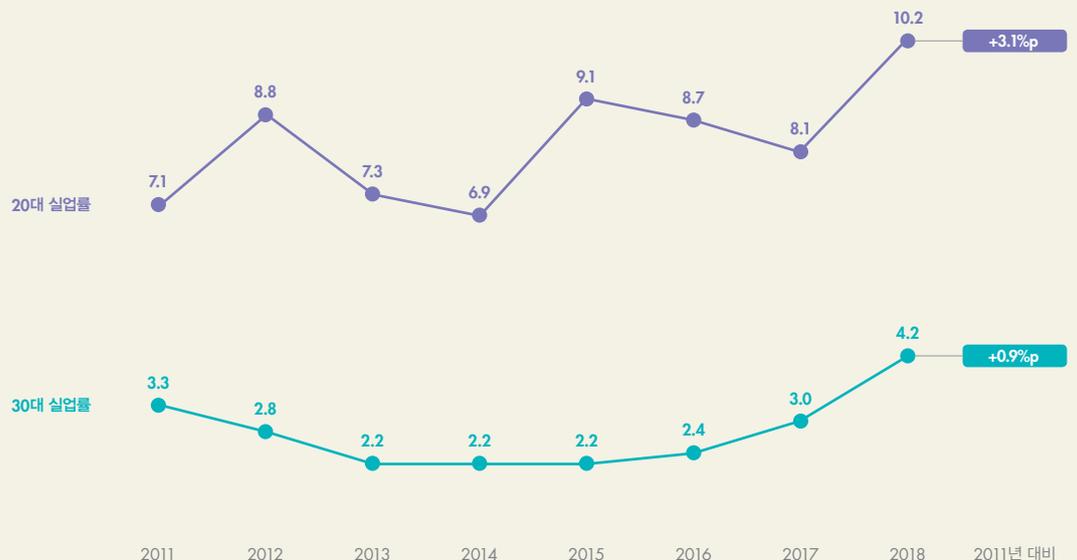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결과로 나타난 저출생 원인 관련 핵심 키워드와 연계해 시·도별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봤다.

2018년 대전의 20대 실업률 10.2%로 두 자릿수 진입

대전의 20대 실업률은 2018년 10.2%로 전국 20대 실업률(9.5%)보다 0.7%p 높았으며, 2011년(7.1%)과 비교해 3.1%p 상승하면서 두 자리 수에 진입했다. 30대 실업률은 20대와 비교했을 때 낮지만 2011년(3.3%) 대비 2018년 4.2%로 0.9%p 상승했으며, 전국 30대 실업률(3.4%)보다 0.8%p 높았다.

대전 청년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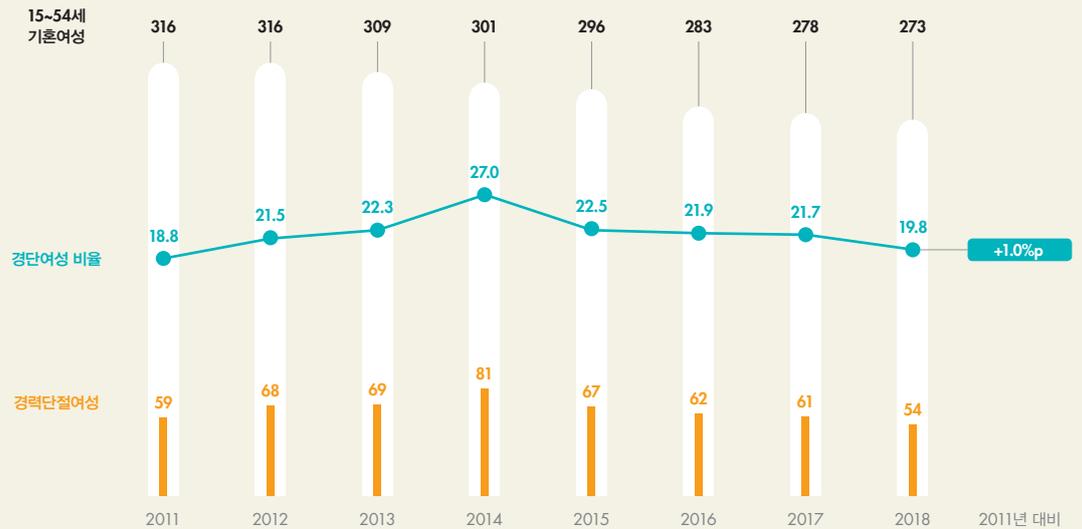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함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는 15~29세, 30~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해 공시되고 있음. 따라서 20대와 30대의 실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구분이 상세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취업자 수를 활용하여 실업자 수를 산출함. 즉 실업자 수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인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취업자 수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경력단절여성 비율, 2011년 대비 0.9%p 상승

15세에서 54세 대전시 기혼여성 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18년 5만 4천 명으로 2011년 대비 5천 명이 줄었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수(2011년 31만 6천 명, 2018년 27만 3천 명)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기혼여성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2018년 19.8%로 2011년(18.8%)보다 1.0%p 상승했다. 2012년(21.5%)부터 2014년(27.0%)까지 늘었다가, 2015년(22.5%)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력단절 예방 사업, 일·생활 균형 제도는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대전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 명, %



* 2011년, 2012년은 2분기(6월) 조사
 * 2013년 이후는 상반기(4월) 조사
 * 2013년부터 행정구역 시도 단위별로 집계
 * 2014년부터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포함됨
 * 경력단절여성이란, 비취업자 중 15~54세 기혼여성인면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함
 * 경력단절여성 비율 =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 100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경력단절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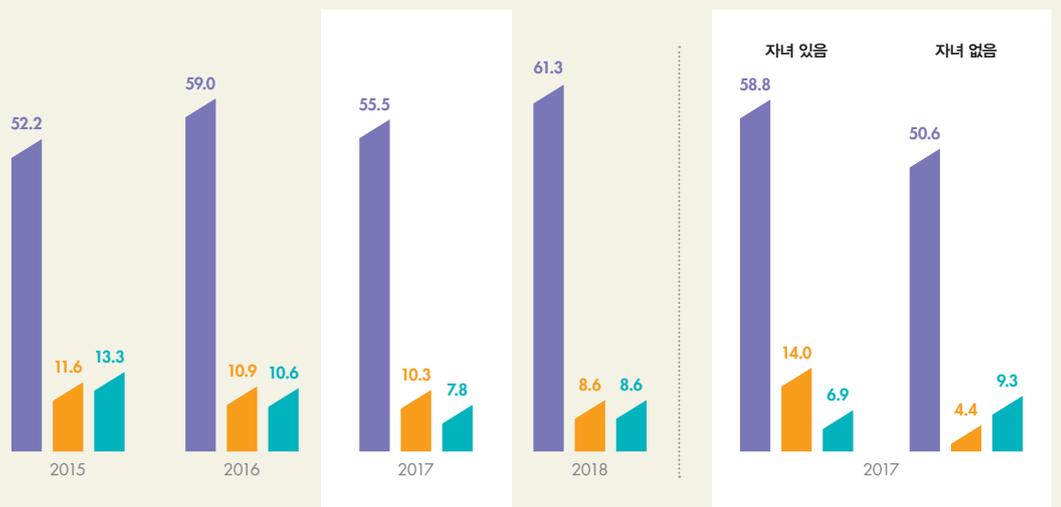
기혼자들 '주거비'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하고, 자녀 유무에 따른 교육비 격차 커

대전시 사회조사의 '가계 부채 여부 및 이유' 문항에 대해 기혼자들이 부채 이유로 꼽은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를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자. 2018년 '주택 임차 및 구입'으로 빚을 졌다고 응답한 기혼자는 61.3%로 2015년(52.2%)과 비교해 9.1%p 상승함으로써 주거구입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비'는 2015년(11.6%)보다 2018년(8.6%) 3.0%p 하락했으며, '생활비'도 2015년 13.3%에서 2018년 8.6%로 4.7%p 하락했다. 2017년 자료를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대학원생)까지의 자녀 유무로 분류해 상세히 보면, 교육비 부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부채 이유로 '교육비'를 선택한 비율은 4.4%인데 반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14.0%(+9.6%p)로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대전 기혼자 가계 부채 이유

단위 : %

■ 주택 임차 및 구입 ■ 교육비(자녀교육비, 사교육비 등) ■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 자녀는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대학원생)까지를 포함함
 * 2018년 사회조사 원자료에는 자녀 유무를 분류할 수 없어 2017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 출처: 대전광역시, 『2018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대전세종엑스포_2019 #여성청년_정치 #성매매집결지_재생 #성주류화_정책모니터링 #도시재생 #돌봄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9

DSI Policy Expo 2019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상생협력, 포용, 혁신, 공동체'를 키워드로 전문가 및 시민 등이 함께하는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9』를 10월 17일~18일에 개최합니다. "여성 청년, 마음껏 정치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2019년 3회(통합 18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여성 청년, 마음껏 정치할 수 있나요
-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0시
- 장소** 옛충남도청 소회의실
- 발표** ① '우리는 먼저 미래로 간다'
- 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② '정치, 해보니까 어때'
- 황은주(대전시 유성구의회 구의원)
- 좌장** 이영세(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
- 토론** 권사랑(여성주의 잡지 'BOSHU' 대표)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젠더 GENDER 관점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재생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타시도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집결지 재생에 대한 논의 과정과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추진 사업들을 살펴보고, 대전 원도심의 성매매집결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14시~16시
장소 옛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 주제발표** 성매매집결지와 도시재생
- 장미현(젠더공간연구소장)
- 사례발표** ①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선미촌 해체와 재구성
- 송경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 ② 온양 원도심 장미마을의 여성친화 도시재생사업
- 윤금이(아산젠더포럼 대표)
- 좌장**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토론** 김경희(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손정아(여성인권티움 소장)
우승호(대전시의회 시의원)
정태일(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 (미정)

2019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 도시재생 뉴딜 속 돌봄사업을 들여다보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젠더관점의 제안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추천의뢰를 통해 선발된 9명의 시민모니터단은 9월 11일, 첫 만남을 갖고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에 참여했으며, 모니터링 취지 및 목적, 방법,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상사업별로 팀(3인 1조)을 이룬 모니터단은 10월 동안 현장 방문 및 주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 전과 후로 나눠 팀별 전문가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는 최종 결과발표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2019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 1차 워크숍(9.11.)



발표 영인식_대전세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